

# 조선말과 대한제국 시기 사진기록물의 성격과 생산, 유통 과정\*

The Facets of Photographic Records on Korea in Modern Era

박주석(Park, Ju Seok)\*\*

1. 서론 : 구한말의 사진기록 - 제국의 시선
2. 제국주의가 세상을 통제하고 수집하는 장치 - 사진
3. 제국주의 세력의 침탈 과정에서 이루어진 사진 생산과 유통
4. 서양인의 수집용 사진 생산방식과 유통
5. 전문가 및 아마추어 사진가의 사진 생산과 유통
6. 결론

\* 이 논문은 2018년 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B4054233).

\*\*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firstjason@mju.ac.kr).

■ 투고일: 2019년 09월 30일 ■ 최초심사일: 2019년 10월 04일 ■ 최종 확정일: 2019년 10월 28일

■ 기록학연구 62, 225-258, 2019, <https://doi.org/10.20923/kjas.2019.62.225>

## 〈초록〉

조선의 개항 이후 조선 말기와 대한제국 시대를 찍은 사진기록물은 당시의 기술적 수준이나 대외 개방의 정도를 감안하면 생각보다 많이 존재한다. 한국 관련 사진기록은 서구 사회에 한국을 소개하기 위해 인쇄한 서적의 삽화, 화보 신문이나 잡지의 도판, 빈티지 프린트, 사진엽서, 스테레오 사진, 카드형 사진, 랜턴슬라이드(Lantern Slide) 등 다양한 형태로 보급되었고, 현재도 상당량이 남아 있다.

관련 연구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조선 사람이 처음 사진에 찍힌 1863년부터 1910년 이전에 촬영된 한국 관련 사진은 최소 3,000점에서 4,000점 이상이고, 같은 사진이 중복되기는 하지만 발행된 사진엽서의 수는 25,000점 이상이며, 그중 대부분이 현존하고 있다고 한다.

본 논문은 근대 초기인 구한말 한국 관련 사진기록이 생산되고 유통되는 경로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고, 이를 전형적인 사진가 또는 기관의 활동 사례를 들어 분석했다. 사진에 찍힌 대상은 분명 한국 또는 한국인의 모습이지만, 사진의 생산 주체는 거의 대부분 제국주의의 부역자들인 서양인들과 일본인들이었다.

사진의 경우 생산 주체의 필요나 관점에 따라 사실 관계의 왜곡 가능성이 무척 크다. 그 왜곡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사진의 내용뿐만 아니라 생산자의 의도와 생산 및 소통 경위가 파악되어야 한다. 세월이 많이 흘러 실제 경험자가 없는 시대의 사진기록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판독하는 문제는 근대 한국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한국의 근현대사를 폭넓게 연구하기 위한 초석이기 때문이다.

**주제어 : 사진기록, 조선말의 사진, 대한제국의 사진, 제국의 시선, 사진의 유통, 명성황후사진**

## 〈Abstract〉

Since the opening of Joseon in 1876, the photographic records of the late Joseon Dynasty and the period of the Korean Empire exist more

than expected, considering the technological level and the social situations at that time. Photographs related to Korea can be distributed in various forms, such as illustrations of books printed to introduce Korea to Western society, plates of graphic journalism like newspapers or magazines, vintage prints, photo-postcards, stereo-photographs, card-type photographs, and lantern slides.

There are still a great deal left in various archives of the Europe, America, Japan and Korea. According to related researchers, Korean-related photographs taken between 1863 and 1910, since Koreans were first photographed, were at least 3,000 to 4,000 cuts and the photo postcards issued was 25,000. It is said that most of them exist.

This paper categorizes two ways of producing and distributing photographic records related to Korea, which were early modern times. The subjects of the photographs are clearly Korea or Koreans, but most of the producers of these photographs were Westerners and Japanese, who were imperial servants of imperialism.

In the case of photography, there is a great possibility of distortion of the facts depending on the needs or perspectives of the producers. In order to correct the distortion, not only the contents of the photograph but also the intention of the producer, the production and the communication status should be grasped. This is because the problem of reading photograph records accurately and fairly in an age where there is no real experience is the cornerstone for understanding modern Korea correctly and broadly studying the Modern History of Korea.

**Keywords : The Eye of Imperialism, Photographic Records, Pictures on Late Joseon, Korean Image of Modern Era, Photographs of Choson's Royal Family**

## 1. 서론 : 구한말의 사진기록 - 제국의 시선

개항 이후 조선 말기와 대한제국 시대를 찍은 사진기록물은 당시의 기술적 수준이나 대외 개방의 정도를 감안하면 생각보다 많이 존재한다. 우리나라 관련 사진기록은 서구 사회에 한국을 소개하기 위해 인쇄한 서적의 삽화, 화보 신문이나 잡지의 도판, 빈티지 프린트, 사진엽서, 스테레오 사진, 카드형 사진, 랜턴슬라이드(Lantern Slide) 등 다양한 형태로 소개되었고, 그것들은 현재에도 남아 있다. 관련 수집가이자 연구자의 견해에 따르면 조선 사람이 처음 사진에 찍힌 1863년부터 1910년 이전에 촬영된 한국 관련 사진은 최소 3,000점에서 4,000점 이상이고, 같은 사진이 중복되기는 하지만 발행된 사진엽서의 수는 25,000점 이상이며, 그중 대부분이 현존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1910년 한일 강제병합 이후 서양과 일본 출판물 등에 소개된 사진과 조선총독부 같은 일제 통치기관 등이 촬영한 사진은 수만 점을 상회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이돈수 2008, 616).

여기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개항기와 대한제국 시절 한국을 드나들었던 외국인들 대다수가 일본인들과 중국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진기록을 수집하고 유통시킨 사람들 대부분은 서양인들이라는 점이다. 현재 한국 관련 서양의 고서를 수집하는 <명지대-LG연암문고>가 소장한 관련 서적은 대략 12,000여종 정도이다. 그 중 조선 말기와 대한제국 시기를 다루었거나 같은 시기에 발행되었으면서 관련 사진을 삽화로 실은 단행본 도서가 300여권에 이르고, 화보신문과 잡지 또한 100종 이상이 있다.<sup>1)</sup> 물론 1910년 일본의 강제병합 이후에는 일본과 한국에서 생산하고 유통한 사진이 압도적으로 많아지지만, 구한말 한국을 찍은 대부분의 사진은 서양에서 만들어지고 출판되고 유통되었다. 이처럼 지리적으로 머나먼 나라인 조선

---

1) 한국관계고서찾기운동본부 엮음, 2006. 명지대-LG연암문고 10주년 기념 특별전 『코레아 건문록』 도록. 여기에 인용한 자료의 종류와 양은 위 도록에 소개한 내용을 근거로 추산한 것이다.

의 사진이 서양에서 그토록 많이 생산, 유통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유추해볼 수 있다.

첫째는 조선이 미지의 나라였다는 이유이다. 당시 긴밀한 관계에 있던 중국이나 일본 같은 동북아 사람들에게 한국은 그렇게 낯선 신기한 나라가 아니어서 그들은 한국에 크게 흥미를 갖지 못했었고, 자연히 수요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사진기록 또한 많지 않았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에 이어 동아시아에서는 마지막으로 서양인들에게 문호를 개방한 조선은 서양인들에게는 그야말로 신비하면서도 흥미진진한 나라였고, 자연히 그들 사회에서 한국을 찍은 사진에 대한 수요가 많았을 수밖에 없었다. 당시 서양인들의 조선에 대한 생각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조선을 소개하는 책의 제목으로 사용한 'Choson: The land of morning calm' 즉 '조용한 아침의 나라, 조선'이라는 표현이었다.<sup>2)</sup> 조선은 이국적인 풍물과 삶을 알고 싶어 하는 서양인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대상이었다.

둘째는 이 시기가 서양 제국주의의 전성기와 맞물려 있었다는 점이다. 제국주의의 확산 과정에서 외교, 군사, 선교, 여행, 정보수집 등 다양한 목적으로 수많은 서양인들이 한국에 왔고, 한국을 찍은 사진을 서양 사회에 소개했다. 당시 한국을 방문한 서양인들 중에는 카메라를 사용할 줄 아는 아마추어 사진가나 저널리스트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상당량의 사진을 제작했을 것이다.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국내에서 빈티지 프린트나 엽서 등의 형태로 판매하는 사진을 구입해서 귀국했고, 이를 유통시켰다(Terry Bennett 1997, 21-24). 외교관들은 외교활동과 관계되는 행사와 인물정보를 담은 한국 관료와의 기념사진 그리고 지리적 정보를 담은 사진 등을, 선교사들은 선교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진을, 다양한 학술적 목적의 인류학 또는

---

2) 대표적인 영어본 저작으로는 Percival Lowell, 1885, *Choson: The land of morning calm*, U.S.A.: Ticknor and Company., 그리고 독일어본으로는 Hamilton, Angus, 1904. *Korea : Das Land des Morgenrots nach Seinen Reisen gescgildort*, Germany: Otto Spamer. 등이 있다.

민속학자들은 학술적 목적에 부합하는 사진을 촬영해서 그들을 파견한 기관 등에 전달했다. 그리고 이 사진들은 제국주의를 강화하는 본래의 용도로 사용된 후 이들 서양인들의 후손에게 상속되거나, 그들을 한국에 파견한 관계기관에 보존하여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다.

근래에 들어 한국사회가 우리의 역사를 성찰하는 과정에서 구한말 한국 관련 사진과 다양한 형태의 이미지를 수집하고 연구하는 전시와 출판이 자주 눈에 띈다. 주로 한국근현대사 연구자들 혹은 언론이 발굴과 소개를 주도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연구의 방향이 서양인들이 남긴 근대 한국에 대한 시각 이미지 자료를 활용한 한국 근대사 구성에 초점이 맞추어지거나, 근대 초기 서양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처음 갖게 된 이미지와 인식을 객관적으로 분석, 비판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사진의 해석에 상당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명성황후’ 사진의 실존과 진위 여부에 관한 공방 등이다. 본문에서 밝히겠지만 당시 사진의 생산과 유통의 경위와 통로를 이해하면 이는 불필요한 논쟁이 되고 만다.

본 논문은 근대 초기인 구한말 한국 관련 사진기록이 생산되고 유통되는 경로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이를 전형적인 사진가 또는 기관의 활동 사례를 들어 분석하고자 한다. 사진에 찍힌 대상은 분명 한국 또는 한국인의 모습이지만, 사진의 생산 주체는 거의 대부분 제국주의의 부역자들인 서양인들과 일본인들이었다. 사진의 경우 생산 주체의 필요나 관점에 따라 사실 관계의 왜곡 가능성이 무척 크다. 그 왜곡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사진의 내용뿐만 아니라 생산자의 의도와 생산 및 소통의 경위가 파악되어야 한다. 세월이 많이 흘러 실제 경험자가 없는 시대의 ‘사진기록’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판독하는 문제는 근대 한국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초기 한국사진사를 폭넓게 연구하기 위한 초석이기 때문이라는 주장(박평중 2008, 148)이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 2. 제국주의가 세상을 통제하고 수집하는 장치 - 사진

사진뿐만 아니라 사진의 발명 이전에도 회화 등 시각예술 매체를 통해 기록하고 기억하려는 의지의 실현은 근대사회를 거치면서 문화적 환경이 바뀌는 과정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고대에 주로 분묘의 벽화를 통해 이루어진 기록은 점차 조각이나 소묘 또는 회화작품의 형태로 바뀌면서 이어졌고, 기록의 대상이나 표현방법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약간씩 변해갔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시각적 기록의 방법과 차원을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이끈 사진의 발명 직전까지도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사진의 등장은 시각적 기록의 속도와 양을 획기적으로 증대시켰고, 그 결과 사진을 발명하고 활용한 19~20세기 제국주의 세력은 세상을 통제하고 권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최상의 수단을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19세기 유럽의 지식인들은 사진의 기능과 역할을 세상을 수집해서 지식으로 만들고 보급하는 명백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간주했다. 사진이 발명되고 초상 사진이 크게 유행하던 1859년 보들레르는 「1859년 살롱 : 근대의 공중과 사진」이란 비평문에서 당시 사진의 유행 트렌드를 분석하면서 사진의 기록 수단으로서의, 또 지식을 수집하고 보조하는 수단으로서의 사진의 기능과 역할을 다음과 같이 설파했다.

“만약 사진의 어떤 성격이 있어 미술을 대체할 수 있도록 용인한다면, 사진은 자신의 동맹군인 우매한 대중의 힘을 빌려 머지않아 미술의 자리를 차지하고 미술의 품격을 망가트릴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사진은 과학과 예술을 보조하는 본래의 역할로 돌아가야 할 때이다. 문자의 인쇄나 속기 같은 기능이 문학을 대신하거나 또는 문학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다. 사진으로 하여금 여행자의 앨범을 풍부하게 채우고, 부족한 기억력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고, 박물학자의 자료실을 꾸미고,

미생물을 확대해서 보여주며, 천문학자의 가설을 입증하는 자료로써 기능하게 하자. 요컨대 사진은 비서나 서기의 일처럼 전문적인 연구나 자료 수집, 정보의 기록 등의 역할을 정확하게 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말이다. 만약 사진이 우리의 상상과 추상의 세계를 침범하고, 인간의 영혼에 기반한 일들의 가치를 추락시킨다면 엄청난 재앙이라 아니 할 수 없다.”(Charles Baudelaire 1980, 88)

위에서 인용한 이 글은 사실 그간 사진 및 역사 연구자들 사이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내용이었다. 전 세계 사진사 연구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로 평가받는 버몬트 뉴홀(Beaumont Newhall, 1908~1993)의 평가가 문제였다. 물론 19세기의 예술사진을 옹호하기 위해 인용했던 말이지만, 샤를 보들레르의 평가를 사진의 예술성에 대한 지극히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파악했다. 사진예술에 대한 뉴홀의 영향력을 극대화시킨 저서 『The History of Photography』에서 그는 보들레르가 사진에 혹독한 비판을 했다고 말했다(보먼트 뉴홀 2003, 95). 하지만 1850년대 당시 프랑스 사진의 상황이나 글의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뉴홀의 주장은 그의 견해를 곡해한 결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예술은 기록보다 우위에 있다는 편견에 불과할 뿐이다. 보들레르의 주장은 사진의 예술성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기록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지식을 창출하는 사진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활용하라는 촉구에 다름 아니었다. 그야말로 근대의 지식 수집과 이를 확산시키는 데 필요한 사진의 가능성에 방점을 찍은 것이었다.

최초의 본격적인 근대인으로 불리는 보들레르의 관점은 근대의 도구로서 또 제국주의의 통제 수단으로서 사진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일종의 선각이었다. 이후 사진은 실제로 서구 제국주의 확산과 침탈 현장의 첨병이 되었고, 구한말의 한국은 전형적인 침탈 현장의 사례였다. 사진술이 상징하는 19세기 근대의 과학과 산업혁명의 기술적 성과를 바탕으로 서양 제국주의 세력은 전 세계를 관찰하고 수집해서 그것을 정보와 지식의 대상으로 삼았

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 세상에 알려진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 조선인의 모습이나 풍물, 풍광 등을 찍은 사진기록의 대부분은 사진 역사의 차원에서보다는 제국주의의 역사란 관점에서 해석하는 방법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제국주의의 전성기인 근대(modern society)의 서양은 개인의 차원에서나 국가의 차원에서나 사진술을 이용해서 세상을 간접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식을 만들고, 그런 지식을 계몽이란 차원에서 보급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사회적 역량을 세계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 사진이 인간의 몸을 어떤 방식으로 통제하는지를 연구하는 한 미국 학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진과 모더니즘은 함께 성장해왔다. 산업사회의 생산물이란 점에서도 그렇고 근대(modern)사회를 규정하는 산업화의 상징물로서 우뚝 서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사진은 18세기에 성장하기 시작해서 근대사회의 주도적인 철학적 사고가 되었던 계몽(Enlightenment) 사상의 상징물이기도 했다. 계몽이란 특별히 경험이야말로 지식의 유일한 원천이라는 신념을 가진 경험론적 철학에 근거한 사상이었다. 이런 계몽사상의 입장에서 볼 때, 사진은 사상이나 감정의 개입이 없이 기계적으로 객관적으로 사실을 보여주어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경험적 지식을 인간에 제공하는 기능을 가진 완벽한 계몽의 도구로 인식되었다. 사진의 존재는 한 사진가의 경험과 그가 본 주제를 응축해서 보여주는 방법으로 계몽의 과정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 사진이 만들어지는 전체적인 과정과 과정들 사이의 상호관계—즉 카메라와 주제, 렌즈와 필름, 관찰자와 사진 등—는 어떤 소재나 광경을 자유롭게 보는 관객의 시선을 하나의 시선으로 묶어내면서 압도적이고 유일한 계몽적 주제를 끊임없이 생산해냈다.”(존 폴츠 2000, 25)

이 글에서 저자는 어떤 대상을 자유롭게 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하나로 묶어내는 사진의 폭력성을 지적했다. 제국주의란 단순히 물리적인 침탈을

넘어서 “관념과 형식 그리고 이미지와 상상에 관한 것”이며, “단순히 부를 얻거나 축적하는 행위가 아니라 지배를 ‘받아야만 한다’는 생각을 포함하는 이념적 형성에 의해, 그리고 지배와 연관되는 지식의 형태에 의해 추진된 것”(에드워드 사이드 2002, 52-56; 이 문장은 권혁희 2005, 17쪽에서 재인용) 이라고 말할 수 있다. 19세기 초반 발명된 사진술은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에 이르면 어느 정도 기술적 완성 단계에 이르렀고, 제국주의의 이데올로기를 구현하고 제국주의가 필요로 하는 정보의 집적과 지식의 축적을 가능하게 하는 최고의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미지의 세계였다가 새로이 개항을 해서 베일을 벗기 시작한 조선은 그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한국을 향한 다양한 시선을 하나로 엮었는데, 그것은 바로 제국주의의 침탈을 위한 시선이었다.

실제 사진 발명자로 인정받는 다게르(L. J. M. Daguerre, 1787~1851)와 탈보트(W. H. Fox Talbot, 1800~1877)가 사진술을 실험하는 과정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세상을 수집하고자 하는 열망이 컸던 서구 근대인들의 욕망을 읽을 수 있다. 다게르는 불특정 다수가 동일한 공간에서 동일한 이미지를 소비하는 근대적 스펙터클의 원형인 디오라마 극장을 운영했고, 여기에서 상영할 이미지를 얻기 위해 카메라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진발명의 아이디어를 얻었다(장 록 다발 1991, 17). 탈보트의 경우는 과학자로서 1830년대 초 당시 교양인이 되기 위한 필수 코스인 이탈리아 여행 도중 보았던 ‘아름다운 경치’를 보존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발명에 뛰어 들었다(Henry Fox Talbot 1844-1846; 보먼트 뉴홀 2003, 23쪽에서 재인용). 이들은 사진발명의 구체적인 동기도 달랐고 출신 성분도 달랐지만, 훗날 근대의 시각문화를 상징하는 스펙터클을 만들고 체험하는 과정에서 기계적 이미지 생산의 과정인 다게레오타입과 칼로타입을 발명했다는 점에서 근대를 선각한 인물들이었고, 세상을 수집하려는 욕망과 취향 또한 비슷했다.

〈사진 1〉 다게르, 화석과 조개껍질의 구성, 다게레오타입, 1837~39



〈사진 2〉 탈보트, Articles of China, 칼로타입, 1835.



〈사진 1〉은 다게르가 다게레오타입 프로세스를 실험하는 도중 자신의 작업실에서 찍은 사진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일종의 벽장식으로 윗부분에는 생물의 화석들이 나란히 전시되어 있고, 아래 부분에는 다양한 종류의 조개껍질이 놓여 있다. 마치 자연사박물관의 전시품처럼 보이는데, 이는 당시 유럽 부르주아들이 세상에 대한 관심과 지식을 풍부히 갖춘 교양인임을 과시하려는 욕망의 표현이었다.<sup>3)</sup>(발터 벤야민 2008, 234-235) 탈보트의 〈사진 2〉는 사진술을 실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집인 레이콕 아베이(Lacock Abbey)의 복도 벽에 붙은 장식물을 찍은 것이다. 이국적인 중국 도자기를 수집해 장식을 해놓은 것으로, 다게르의 화석 수집 취미와 같은 종류의 욕망이었다.

근대 초기 사진은 실제의 복제품이자 대체제로 인식되었고, 사진의 수집은 지식과 정보를 수집하고 지식을 축적하는 서구 근대인의 교양 그 자체였다. 신문과 잡지, 여행서적과 사진엽서 등을 통해 공급된 사진들은 근대 서구사회의 시민들과 제국의 국민들에게 살아있는 역사이고 지리였으며 인

3) 벤야민은 「19세기의 수도 파리」라는 제목의 글 초고에서 '실내장식(interior)'는 사물을 수집하고 보관하는 개인의 우주이고, 이는 세상을 수집하고자 하는 근대인의 욕망이 드러나는 장치임을 지적하고 있다.

류학과 민속학, 진화생물학 등의 교과서였고, 제국주의 시대 시각문화의 양상을 보여주는 문화적 유물이었다(권혁희 2005, 22). 구한말 한국의 사진은 이러한 서구 제국주의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차원에서 생산되고 소통되어 오늘날까지 남아 있다.

### 3. 제국주의 세력의 침탈 과정에서 이루어진 사진 생산과 유통

조선 말 우리나라의 개방을 촉진시켰던 일련의 사건들, 즉 병인양요, 신미양요, 운양호 사건 등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진에 찍히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진과의 접촉은 나라의 운명과 궤를 같이 했으며, 사진에 대한 능동적인 접근이 아니라 수동적인 기록의 단순한 피사체로 전락해버린 역사를 갖고 있다. 본 장에서는 이런 침략의 역사 속에서 한국의 사진이 찍힌 사건과 그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서양 제국주의 세력이 조선에 와서 본격적인 무력을 행사하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이미지를 남긴 사건은 1866년의 병인양요였다. 조선을 침공한 프랑스 해군 함대에는 프랑스 화가인 쥐베르(Jean Henri Zuber, 1844~1909)가 기록화가의 임무를 갖고 참여했다. 그는 강화도와 한강 하구에서 벌어진 전투 장면과 조선 군인들의 모습 그리고 강화도의 풍경과 주민들의 삶을 기록했고, 본국으로 돌아간 후인 1873년 프랑스의 여행 잡지 『Le Tour du Monde』의 별책 부록에 「Une expédition en Corée, 1866」란 제목의 삽화를 목판인쇄 상태로 게재했다. <사진 3>은 그중 한 장이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쥐베르가 참전한 병인양요가 일어난 때는 1866년으로, 이 때는 카메라의 이동성이 개량되고 유제를 직접 만들 필요가 없는 건판이 등장한 시기였다. 1864년에 나온 우드버리타입(Woodburytype)은 사진을 목판 방식으로 전환시켜 찍는 인쇄 방식이었다. 그래서 많은 신문과 잡지들은 현장의 사진을 찍고 이를 목판

〈사진 3〉 Zuber, 강화도 민가, 1876, Une expédition en Corée 1866



조각가들에게 맡겨 판각의 밑그림으로 사용했다(장 퉁 다발 1991, 57).

프랑스 화보신문인 1847년 7월 1일자 『L'illustration』 등에서 볼 수 있듯, 사진을 저본으로 삼은 삽화가 처음 등장한 것은 사진발명 공포 후 10년도 채 지나지 않은 1847년이였다(강명숙 외 2009, 252). 물론 쥐베르의 삽화목록에 실리지는 않았지만 병인양요 당시 찍힌 사진도 실존하고 있다(Terry Bennett 1997).<sup>4)</sup> 당시는 많은 화가들이 생계유지 차원에서 사진술을 습득해 초상사진관을 열고 영업을 하던 시기였다. 그렇다면 쥐베르 역시도 사진술을 습득하고 있었고, 병인양요 당시에도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었을 개연성이 무척 높다. 더구나 삽화 자체가 갖고 있는 원근감이 선형원근법을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현존하는 쥐베르의 삽화는 사진을 저본으로 만든 도판임이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하면

4) 이 사진들은 병인양요 당시 찍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인 3인의 사진은 Terry Bennett 이 소장하고 있는 빈티지 프린트이다. 그는 “이 사진들은 1860년대에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며 확실히 같은 시대에 찍혀진 사진들이다. 3장의 사진들을 살펴보면 배 갑판 위에서 촬영되었다. 이 사진들은 프랑스 소장자들로부터 사들였으며 1866년 프랑스 함대에 의해 촬영된 것이다. 만약에 이 사진들이 1866년에 찍혀진 것이라면 현존하는 가장 초창기의 한국 사진일 것이다.”라고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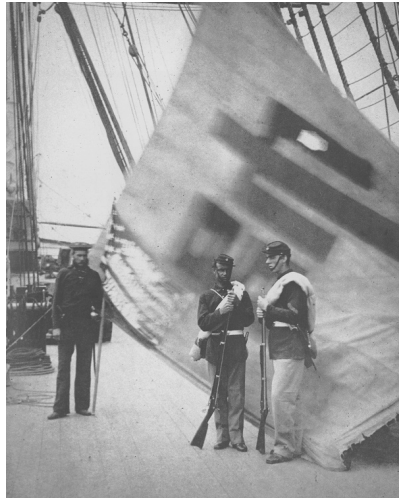
병인양요는 한국 땅과 한국 사람이 사진에 찍힌 최초의 현장으로 기록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1871년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 일어났던 이틀간의 짧은 전쟁인 신미양요는 우리나라를 무대로 한 사진 활동 중 가장 중요한 기록을 생산한 사건이었다. 일본의 요코하마에서 출항한 5척으로 구성된 미군 함대에 당시의 유명한 여행사진가 펠릭스 비토(Felice Beato, 1832-1909)와 그의 조수 울렛(H. Woollett)이 미군 측 중군사진가로 승선하여 참전했다. 그들은 전투기록의 일환으로 사진을 촬영했는데, 그들이 전투 장면과 강화도의 지리 그리고 조선정부의 사신단과 포로 등을 찍은 약 50여점의 사진이 현재 남아 있다. 이들 사진은 오늘날 한국사 교과서나 서양 역사서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고, 서양인이 갖고 있는 한국의 이미지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진으로 평가 받는다.

〈사진 4〉 펠릭스 비토, 콜로라도호의 조선인 포로, 젤라틴실버프린트, 1871



〈사진 5〉 펠릭스 비토, 수자기 앞의 미군, 젤라틴실버프린트, 1871



이 사진은 미국 측의 공식 기록으로는 현재 사진가를 밝히지 않은 채 중군사진반이라는 익명으로 미국 국가기록원(NARA,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에 보관되어 있다. 하지만 비토는 사진 전체를 인화해서 한 부를 미군 측에 납품하고, 상해로 넘어가 이 사진들을 재인화해서 사진첩으로 만들어 판매하기도 했다. 이렇게 팔린 사진은 당시 홍콩에서 발행되던 영문 계간 잡지 『The Far East』에 「조선의 전쟁」이란 제목의 특집 화보로 실리기도 했다. 또 30~40여점으로 구성된 여러 권의 사진첩으로 만들어져 유럽으로 건너가 조선의 이미지를 만들기도 했으며,<sup>5)</sup> 일본 요코하마의 개항자료관에도 그의 사진이 다섯 장 보관되어 있다. 〈사진 4〉에서 조선인이 미군이 먹다 버린 맥주병을 들고 있는 장면은 제국주의가 조선을 어떻게 타자화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며, 〈사진 5〉에서 볼 수 있는 포획한 조선군의 수자기(帥字旗)를 배경으로 한 기념사진은 제국의 우월성을 시각적으로 각인하는 이미지였다.

제국주의 침탈의 과정에서 우리나라를 찍어 많이 알려진 또 다른 사진은 1876년 일본과의 강화도조약 당시 일본정부로부터 파견된 사진가였던 가와다 기이치(河田紀一)가 촬영해서 만든 『강화도조약 사진첩』에 실려 있다. 당시 일본은 조선과의 수교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여러 가지로 기록하기 위해 사진가를 파견해서 사진을 찍고 사진첩을 만들었다. 이 사진첩에는 총 28장의 사진이 실려 있는데 주로 정박 중인 일본 군함과 상륙지점, 수고, 강화도의 풍경, 조선 관리의 초상 등을 기록한 것들이다. 가와다 기이치는 운양호 사건 이후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 이른바 〈강화도조약〉을 체결할 때 수행원의 자격으로 파견되었으며, 수행원 명단에는 ‘개척사 15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그는 일본사진사에서 홋카이도개척사(北海島開拓使) 시절 개척 과정의 사진기록을 일부 맡았던 관변의 기록전문 사진가였다. 이 당시는 일본의 경우 개항기를

5) Terry Bennett, 1997. *KOREA : Caught in Time*, London: Garnet Publishing Limited. 비토가 만든 여러 사진첩 중 2권을 현재 이 책의 저자가 소장 중이다.

지나 본격적으로 서양의 제국주의를 답습해나가던 시기였고, 그런 의미에서 이 사진첩은 제국주의 시선의 한 단면을 보여 준다.<sup>6)</sup>

구한말 서양사회에 한국의 이미지를 정형화시킨 또 다른 사진기록은 1885년부터 1887년까지 영국 해군의 동양함대가 조선 남해의 작은 섬 거문도를 점령했을 당시 생산한 사진들이다. 영국은 본격적으로 거문도를 점령하기 전부터 전략적 가치를 인식하고 관찰해 왔으며, 거문도를 <포트 해밀튼(Port Hamilton)>이라고 칭하고 서양 사회에 소개했다.<sup>7)</sup>(Edward Belcher 1848, 352) 그러던 중 부동향을 찾는 러시아의 남해를 저지한다는 명분으로 1885년 4월에 섬을 점령하고 이곳에 기지를 건설하고 군대를 주둔시켰으며, 일본의 거점인 나가사키 항을 통해 수시로 군함과 보급 수송선을 거문도에 보냈다. 점거기간 동안 거문도에 수시로 기항했던 군함 페가수스(HMS Pegasus)호의 그렌펠(Grenfell) 함장, 달링(HMS Daring)호의 데이비스(Davis) 함장, 군중 신부였던 버크웰(H. F. Buckwell), 정보장교인 우드(A. C. Wood) 대위 등이 다양한 거문도 사진을 찍어 본국으로 보냈다. 일종의 스파이 활동이었다. 당시 사진은 가장 중요한 정보수집의 수단이었기 때문에 정보장교를 비롯해 상당수 군인들이 사진술을 익히고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다.

당시 사진기록은 거문도 주민의 초상과 생활 모습, 풍속, 동도(東島), 서도(西島), 왜도(矮島), 고도(古島) 등의 전경, 주둔군의 임시막사와 희생자들의 묘소, 해병대용 막사의 모습과 건설 장면, 러시아함대의 거문도 진입을 방어하기 위한 목책건설 장면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이 본국인 영국으로 보낸 미지의 나라 조선을 찍은 사진은 당시 영국 언론들의 큰 관심을 끌었고, 특집 화보의 형식으로 자주 보도되었으며, 다시 유럽 전역으로 확산

---

6) 강화도조약 사진첩에 관한 내용은 <최인진, 2015. 『사진침략』, 도서출판 아라.>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7) 1845년 영국해군 Edward Belcher 함장이 지휘로 이 섬을 탐색한 군함 Samarang호의 왕래(往來)에서 비롯되었다.

되었다. 그들의 눈에 이국적이고 신기한 조선의 모습은 제국주의의 시선에서 타자화된 이미지의 전형이었다. 〈사진 6〉은 거문도 주민의 사진이고 〈사진 7〉은 주둔군의 사진으로, 두 장의 사진을 찍는 앵글(로우앵글과 하이앵글)과 구성 등을 비교해 보면 대상에 따라 시선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남을 알 수 있다.

〈사진 6〉 거문도 서도의 대장간, 1885~1887

〈사진 7〉 거문도 주둔 영국해군 기념사진, 1885~1887



이들이 찍은 거문도 사진기록은 목판의 형태로, 때론 사진을 저본으로 하는 스케치의 형태로, 나중에는 그라비아(Gravure) 인쇄 방식으로 당시 영국 화보신문의 지면을 장식했다. 1886년 12월 11일자와 1887년 2월 12일자 『The Graphic』, 그리고 1887년 11월 26일자 『The Illustrated London News』는 여러 장의 사진을 화보로 꾸며 실었으며, 1887년 11월 26일자 『The Illustrated London News』에는 주둔군과 거문도의 생활상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20여장의 사진이 실려 있다. 거문도 주둔 영국 장교들의 관련 보고는 현재 런던 근교 큐가든(Kew Garden) 지역의 <영국국립문서보관소(The Public Record Office)>에 보관되어 있으며, 사진기록은 현재 영국 런던 그린위치(Greenwich)에 소재한 <국립해양박물관(National Maritime Museum)>에 유리원판 형태로 소장되어 있다(김재승 1996, 217-264). 현재 국내에 알려진 거문도 사진 대부분은 바로 이 기관이 제공한 사진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일부는 신문 자료를 복제한 이미지들이다.

서양에서는 사진인쇄의 방법이 우드버리타입(woodburytypes, 목판의 일종)과 그라비아 인쇄 또는 콜로타입(Collotype) 인쇄 방식을 거쳐 1890년대 사진제판법을 활용하는 망판인쇄법(halftone-process)의 시대가 열렸다. 사진이미지의 인쇄가 간단하면서도 문자와의 동시 인쇄가 가능해지면서 화보를 중심으로 하는 그래픽저널리즘의 전성시대가 열린 것이다. 프랑스의 『L'illustration』, 영국에서 발간한 『The Illustrated London News』와 『The Graphic』, 독일라이프치히에서 발행된 『Illustrirte Zeitung』 미국에서 발행된 『Leslie's Illustrated Newspaper』와 『Harper's Weekly』 등이 대표적인 화보 신문이었다(강명숙 외 2009, 253). 동아시아의 정세뿐만 아니라 국제질서의 재편 향방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은 이들 언론에게 매우 흥미 있는 뉴스 소재였다.

1894년 발발한 청일전쟁과 1904년 시작된 러일전쟁은 전쟁의 주 무대가 한반도였고, 전쟁을 취재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언론사에서 파견한 사진기자들의 사진에는 당연히 한국인의 모습과 도시 그리고 자연풍광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청일전쟁의 경우 전투가 일어난 지역을 순서대로 보면 '야산만전투', '평양전투', '압록강전투' 그리고 만주의 '여순(旅順)전투'가 벌어졌고, 해상 전투로는 '황해해전'이 있었다. 러일전쟁의 경우에는 '제물포해전'을 시작으로 '여순해전'과 '쓰시마해전' 등이 있었고, 육상 전투로는 '만주전투'가 가장 컸다. 전쟁 시기 한국은 해상을 제외하고 직접적인 전쟁 지역은 아니었으나, 만주로 향하는 일본군의 경로이자 병참기지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일본군의 동향을 취재하는 사진기자의 사진기록에는 한국 관련 사진이 많았다. 또 두 번 이어진 전쟁의 한 당사국이 일본이었던 만큼 일본인 사진가들의 사진도 많이 생산되었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의 전후 상황을 찍은 사진들은 영국의 『The Illustrated London News』와 프랑스의 『L'illustration』 등에 자주 실렸다. 특히 러일전쟁 사진은 청일전쟁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데, 그것은 러시아와 다양한 지

역에서 해상 패권을 놓고 다투던 영국의 관심이 무척 높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특히 『The Illustrated London News』나 『The Graphic』 같은 영국 신문에 러일전쟁 관련 사진과 한국 사진이 많이 실렸다. 던(R. N. Dunn), 피셔(H. Fisher), 커크(H. W. Koekkoek), 프라이어(M. Prior), 스트워드(A. Stewart), 스캇(G. Scotte) 등 많은 사진기자들이 사진을 만들어 이들 신문에 보냈고, 그중에는 요시다(K. Yoshida)라는 일본인 사진기자도 있었다.

한편 청일전쟁에 종군한 일본인 사진기자들 상당수는 전쟁 후 한국으로 이주하여 사진관을 개설해서 영업을 했고(권행가 2013, 206), 많은 한국 관련 사진을 생산해 서양의 수집가들에게 판매하는 에이전시가 되었다. 이들 사진기자들이 찍은 사진은 신문에 게재된 후 수집가들에 팔려나가 서구 각 나라에서 발행한 한국 관련 책의 삽화로 많이 사용되었다. 특히 청일전쟁 전투 장면은 1895년 미국에서 발간된 트럼블 화이트(Trumbull White)의 저서 『The War in the East : Japan, China and Corea』(Trumbull White 1895)에, 러일전쟁 시기 우리나라의 모습을 찍은 장면은 앵거스 해밀튼(Angus Hamilton)의 책 『Korea』(Angus Hamilton 1904)와 한국에 애정을 많이 가졌던 이사벨라 비숍(Isabella B. Bishop)의 책 『Korea & Her Neighbours 1, 2』 두 권에 집중적으로 실려 있다.<sup>8)</sup>

#### 4. 서양인의 수집용 사진 생산방식과 유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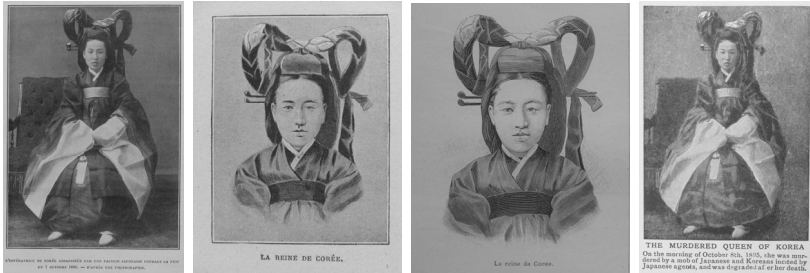
먼저 4장의 사진으로 나열한 〈사진 8〉을 살펴보도록 한다. 구한말 서구의 잡지나 신문 그리고 여행기나 보고서 등 여러 군데 사진으로 사진 설명

---

8) Bishop, Isabella B. 1988. *Korea and Her Neighbors*. New York: H. Revell Co. 연세대학교 출판부에서 영인본(影印本)을 간행한 바 있다. 또 근년에 국역본(國譯本)도 출판된 바 있는데, 이들은 우리나라에서도 비교적 잘 알려진 여행기 중의 하나다. Bishop, Isabella B. 1905(1898). *Korea & Her Neighbours Vol. 1, 2*, John Murray가 원본이다.

이 ‘명성황후’ 또는 ‘왕비’로 게재되어 있는 예이다.

〈사진 8〉 명성황후로 표기한 사진 4종



다음으로 다른 4장으로 구성된 〈사진 9〉를 보도록 한다. 같은 시기 같은 종류의 매체에 실린 사진들로, 굳이 번역하자면 ‘조선의 공녀’ 또는 ‘조선의 여인’ 정도로 소개되어 있는 경우이다.

〈사진 9〉 일반 공녀로 표기한 사진 4종



위 사진들의 일부는 사진 그 자체로 인쇄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일부는 사진을 저본으로 삼아 목판을 만들어 찍어놓은 경우도 있다. 하지만 원고로 쓰인 원래의 사진은 전부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같은 사진이 실린 문헌은 대략 1895년부터 1905년 정도의 10여 년간 영국, 프랑

스, 독일, 호주, 미국 등에서 발간되었고, 현재 이 사진을 실은 국내에 소개되어 있는 책과 신문, 잡지만 해도 25종 정도가 넘는다.

그중 가장 앞선 것은 독일에서 발행한 『카톨릭 전교회지』 1895년 9월호이다. 실제 사진을 저본으로 삼아 목판으로 인쇄해서 게재했는데, 사진 설명은 ‘조선 여인’이었다. 1895년 호주에서 발행된 영국 외교관 가드너의 저서 『조선』에도 같은 사진을 게재했는데, 이 책의 사진 설명도 ‘궁복을 입고 있는 조선 여인’으로 되어 있다. 반면 프랑스 언론인이자 북경 특파원을 지냈던 드 라게리(Villetard de Laguerie)가 1898년에 출판한 『조선-독립, 러시아 또는 일본』이란 책에는 ‘조선의 여왕’으로, 1904년 프랑스 신문 『르 투르 뒤 몽드(Le Tour du Monde)』에 실린 기행문에는 ‘시해된 대한제국 황후’로 표기되어 있다.

같은 사진이 여러 나라에서 출판된 다양한 매체에 실려 있고, 더 나아가 사진의 설명도 제각각인 이유는 분명히 존재한다.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말한 대로 서양사람 누군가가 명성황후를 알현하고 찍은 사진이라면, 다시 말해 사진의 생산자가 분명하다면, 이런 혼란은 없었을 것이다. 명성황후 사진의 실존여부와 진위여부를 두고 벌어지는 논쟁 또한 없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런 혼란은 구한말 한국 관련 사진이 누구에 의해 왜 생산되었는지 다시 말해 사진의 생산과 유통 경로에 대한 연구가 없이 사진의 내용 자체만을 갖고 판단한 왜곡과 무지가 원인이었다.

대한제국 시절 당시 신문에 실린 사진관 광고 두 개를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황성신문』에 실린 <국진전(菊田眞)사진관>의 광고는 “만세 불변색의 사진을 소본으로부터 6척 이상의 대본까지 최 염가로 촬영함, 풍속, 경색, 기생들의 사진을 염가로 판매함”(『황성신문』, 1904. 8. 25)이라는 내용이었다. 다른 하나는 『조선일보』에 실린 부산에서 영업을 하던 <토비(土肥)사진관>의 광고 문안으로 “土肥사진관 부산 幸町 2정목 전화 108번, 불변색 사진 급 한국풍속사진, 土肥耕美園 불변색 사진 병 한국풍속사진 각종 판매”였다(『조선일보』, 1905. 3. 13, 3. 20). 이 신문은 부산에서 발행했던 것

으로, 물론 지금 우리가 아는 조선일보와는 다른 전혀 다른 일제 강제병합 이전에 나왔던 신문이었다.

1880년대부터 일본인 사진사들은 서울을 비롯하여 인천, 부산 등에 진출해서 일본 거류민과 조선인을 상대로 영업을 시작했다. 특히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거치며 일제의 한반도 지배권이 강화되자 대거 진출하는 러시를 이루었다(박주석 2019). 이들은 초상사진 찍어주는 일이 본업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조선을 방문하는 서양과 일본의 여행자들에게 한국의 풍속과 생활상 등을 보여주는 사진을 찍어 판매하는 일을 겸했다. 다케시타 요시하루(竹下佳治)라는 일본 나가사키 출신의 사진사는 <조선각지경색풍속사진발매소(朝鮮各地景色風俗寫真發賣所) 조선부산출장소>를 설립해 운영했던 인물이었다(『東亞貿易新聞』, 1894. 9. 10). 당시 한국에 진출한 대부분의 일본인 사진관들과 아주 극소수의 한국인 사진관이 한국의 이미지를 서양 세계에 공급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다.

이 당시 서울에서 활동하면서 한국의 사진이미지를 생산하고 여행객들에게 판매한 대표적인 일본인 사진관들로는 퇴계로 일대의 <이등(伊藤)사진관>, <생영관(生影館)>, <봉선관(鳳仙館)>, 회현동과 남대문로의 <경성(京城)사진관>, <하원(河原)사진관>, <천원(川原)사진관>, 충무로 일대의 무라카미텐신(村上天真)의 <천진당(天真堂)>, <재등(齋藤)사진관>, <향산(香山)사진관>, <금전(金田)사진관>, 을지로의 <암전(岩田)사진관>, <정(礎)사진관>, <고등(高等)사진관>, 소공동의 <전중(田中)사진관>, <촌상(村上)사진관>, 무교동의 기쿠타신(菊田眞)의 <국전(菊田)사진관> 등이 있었다(박주석 2019).<sup>9)</sup>

<사진 10>은 당시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일본인 사진관 중 하나였던 <생영관(生影館)>이 찍어서 판매했던 조선 관리의 초상이고, <사진 11>은 한국의 경치와 풍속을 찍은 사진을 판매한다는 <촌상(村上)사진관>의 광고(『한반도(韓半島)』 제2권 1호)<sup>10)</sup> 지면이다. 이 잡지는 주로 한국에 주재하거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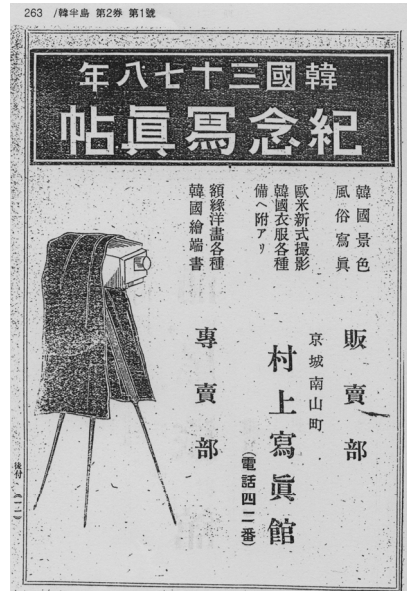
9) 자세한 사진관의 명칭과 관주, 활동상황은 <박주석, 2019. 일제하 북촌의 사진관과 <경성사진사협회>의 등장. 『AURA』, 42.』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여행을 온 외국인들에게 한국 관련 정보를 제공하던 종합 정보지로, 한국 관련 사진을 구입할 수 있는 주요 구매층이 일본인이나 서양인들이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사진 10〉 조선 관리의 초상, 생영관, 1890년대. 한국이미지언어연구소 소장



〈사진 11〉 『한반도(韓半島)』 제2권 1호에 실린 촌상사진관 광고



물론 우리나라를 방문한 서양의 여행자들 중에는 사진술을 익혀 직접 사진을 찍은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당시 사진기술은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 카메라 부피도 엄청 크고 무거웠으며, 유리원판의 무게와 가격 또한

10) 잡지 『한반도(韓半島)』는 서울에서 1900년부터 간행되기 시작한 일본어 종합지로서, 당시 일본을 비롯한 서양의 외교관들이 한국의 사정을 알고자 구독했다. 이 잡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김효순, 2012, 한반도 간행 일본어잡지에 나타난 조선문예물 번역에 관한 연구. 『일본연구』, 33.〉를 참조하면 좋다.

여행자가 사용하기에는 버거웠다. 전문적인 사진가가 아니면 사진 찍는 일은 거의 불가능했다.<sup>11)</sup> 그래서 『Illustrated London News』 같은 화보 신문이 파견한 사진기자 또는 〈Underwood & Underwood〉 같은 사진 공급 전문회사의 사진가 정도가 직접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 고종 황제의 초상을 찍은 퍼시벌 로웰(Percival Lowell)의 경우 같은 예외도 있지만, 일반 서양의 선교사나 외교관이나 또는 여행자가 사진을 찍어 한국을 서양에 소개했다는 학설은 성립되지 않는다.

앞서 말했듯이 이국적인 취향과 세상의 모든 현상을 수집하기 원했던 당시 서양의 소위 교양인들은 여행을 하면서 현지에서 그 나라나 지역의 풍속과 풍광을 찍은 사진을 구매했다. 오늘날 우리가 여행을 가서 사진엽서를 사서 모으는 것과 같은 일이다. 이렇게 구입한 사진을 갖고 가서 여행기나 화보잡지에 게재했던 것이다. 이런 시장이 형성되자 사진관들은 여행자들이 쉽게 만날 수 없거나 사진촬영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상, 희귀한 풍속, 한국의 생활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 등을 찍고, 이를 다량으로 인화해서 팔았다. 물론 광고도 냈다. 이처럼 사진관에서 상업적인 목적 하에 제작한 사진들이 대량으로 유통되어 서구사회에서 한국의 이미지를 정형화시키는 데 한 몫 했던 것이고,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우리나라에 관한 다양한 서양의 저작들 수백 종에 똑같은 사진이 반복해서 실렸던 것이다.

한편 이처럼 사진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언어 소통의 문제가 당연히 있을 것이다. 앞서 예시한 ‘명성황후’의 사진으로 알려진 사진뿐만 아니라 다른 사진들도 매매되는 과정에서 의도적인 왜곡 또는 어쩔 수 없는 오해가 생긴 경우도 많았다. 당시 사진 판매 영업을 주로 담당했던 일본인 사진사

---

11)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무거운 유리건판을 갖고 다녀야 했고, 건판을 사용하는 카메라 역시 대형 뷰카메라로 삼각대를 비롯한 다양한 부속 장비를 갖추어야 했다. 개인이 들고 다닐 수 있는 코닥의 포켓카메라가 시판된 것은 1880년대 후반의 일이나 이는 사진 1장을 찍고 바로 코닥현상소에 맡겨 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실제 장거리 여행자가 사용할 수 없었다. 휴대가 편리한 롤필름용 소형 카메라가 발매되어 본격적으로 사용된 때는 1910년대 이후였다.

들이나 한국 사진사들이 영어나 불어를 잘 했을 리가 없었고, 통역이 있었다고 해도 당연히 왜곡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같은 사진의 인물이 ‘황후’도 되었다가 ‘궁녀’도 되었다가 했던 것이었다. 서양 여행자들 또한 자기가 구입한 사진의 주인공을 자신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소개했었을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서양인들이 구입한 사진을 공급하는 일본인 사진사들 역시 제국주의 세력의 일부였고, 그런 시선으로 한국을 보았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한국에서 사진을 구매해서 본국으로 돌아가 사진을 첨부해 여행기나 역사 소개서를 쓴 수많은 필자들이 있었다. 주로 외교관, 선교사 등이었으며, 전문 여행 작가들도 있었다. 한국 선교의 개척자인 존 로스 목사(Rev, John Ross)의 『한국역사(History of Corea, 1879)』, 에른스트 오페르트(Ernst Oppert)의 『한국기행(Ein Verschiossenes Land, Reisen nach Corea, 1880)』, 1871년 일본에 건너와 화학을 가르치면서 일본과 조선의 역사를 연구한 윌리엄 엘리엇 그리피스(William Elliot Griffis)의 『은둔국, 조선(Corea, the Hermit Nation, 1882)』, 퍼시벌 로웰(Percival Lowell)의 『조선, 고요한 아침의 나라(Choson the Land of the Morning Calm, 1886)』, 조선 부영사로 18개월간 조선에서 생활했던 칼스(W. R. Carles)의 『한국생활(Life in Corea, 1888)』, 영국왕립지리학회의 인도지역 임원을 지낸 제임스(H. E. M. James)의 『장백산(The Long White Mountain, 1888)』, 퍼시벌 로웰의 『동아시아의 영혼(The Soul of the Far East, 1888)』 등이 바로 1880년대에 출판된 한국 관련 사진이 실린 대표적인 서양서적들이다.

1890년대, 1900년대에는 여러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다양한 사진을 수집해서 자국의 이익을 위한 정보로 활용하거나, 사진 자체로 자국에 소개하거나, 인쇄 매체에 삽화로 활용한 사례가 급속히 증가했다. 한국에 체류해 있는 동안 체험한 바를 기록한 『청한론(淸韓論 ; China and Korea)』의 저자 데니(Denny, Owen N.), 미국의 선교사이자 의사인 알렌(Horace Newton Allen, 안련(安連), 1858~1932), 조선의 기독교에 영향을 준 또 다른 대표적 인물 언더우드(Horace Grant Underwood, 1859~1916), 조선 기독교사의 중요

한 사건인 대부흥운동을 주도한 서양인 선교사인 W. T. 레이드 박사, M. S. 스톱스 목사, '그리스도를 위한 백만인 운동'의 주역이었던 갬블(Faster Kirk Gamble, 1880~1969), 서울에서 한국인 기독교인과 함께 한 게일(James Scarth Gale, 1863~1937) 박사, 『러일전쟁 중의 한국 신혼여행(Meine Hochzeitsreise durch Korea während des Russisch- japanischen Krieges)』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간한 루돌프 짜벨(Rudolf Zabel),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Im Lande der Morgenstille)』라는 제목으로 일기 형식의 여행기를 1915년에 출간한 노르베르트 베버(Norbert Weber) 등이 그들 외국인들이었다.

또 최근에 발굴된 해외한국학의 선구자인 모리스 꾸랑(Maurice Courant)이 1900년에 열린 '파리만국박람회'를 기념해 만든 사진첩 『서울의 추억(Souvenirs de Seoul)』, 1902~03년 사이 서울에 주재한 이탈리아 총영사 까를로 로제티(Carlo Rossetti)가 1904년 발간한 『꼬레아 꼬레아니(Corea e Coreani)』는 사진의 질적 측면에서 매우 우수한 기록물로 평가받고 있다(이돈수 2008, 611-612). 특히 로제티가 수집한 사진 48점은 당시 대한제국 우정국의 주문으로 프랑스인 샤를 알레베크(Charles Aleveque)가 프랑스 현지에서 만들어 당시 국내로도 반입된 사진엽서에 그대로 사용되기도 했다. <사진 12>는 알레베크의 엽서 중 명성황후 장례식 사진이다.

<사진 12> 명성황후 국장, 알레베크 엽서, 1903



## 5. 전문적 및 아마추어 사진가의 사진 생산과 유통

한국에 입국해 본격적으로 사진촬영을 했던 외국인 아마추어 사진가로는 퍼시벌 로웰이 대표적이다. 로웰이 남긴 사진 기록은 그가 1883년부터 1884년 봄까지 서울에 체류하면서 촬영한 사진들이다. 이 사진들은 로웰 천문대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알려진 바 있으며, 최근 조사에 의하면 미국 보스턴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sup>12)</sup> 이 미술관에 기증한 시기는 명확하게 알려진 바 없다. 보스턴미술관에 기증한 로웰이 촬영한 사진 중에는 이 무렵 한국에 와서 촬영한 69여 점이 있고, 그중에 고종과 왕세자의 여사진 4장도 포함되어 있다.<sup>13)</sup> 그는 조선 풍물에 대한 흥미를 갖고 많은 사진을 촬영했는데, 이 사진들을 1885년 1월 하버드대학 출판부에서 나온 『조선, 고요한 아침의 나라(Choson : the Land of the Morning Calm)』에 도판으로 게재했으며, 미국 보스턴 아마추어 사진계에도 전시를 통해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 사진들은 보스턴 사진계를 떠들썩하게 했으며, 보스턴아마추어사진가협회는 1884년의 가장 우수한 작품이라는 평가와 함께 최우수상을 수여했다(조경철 2004, 22, 79). 〈사진 13〉은 그의 책인 실린 사진들 중 하나로 서울에 있던 ‘원각사지10층석탑’의 원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대형 사진에이전시에서 파견했거나 계약으로 일한 상업 사진가들의 사진 또한 조선의 이미지로 서양 사회에 널리 유포되었다. 우리나라의 풍물이나 사회상에 대한 사진기록을 가장 많이 남긴 생산의 주체는 대형 사진 에이전시들이었다. 1900년대 당시는 서양 사회에서 세계 각국의 자연환경과

12) 미국 보스턴미술관에 소장된 로웰의 사진을 입수한 서헌강(문화재 전문사진가)은 로웰의 사진 원본은 약 11×14인치 정도 크기였으며, 그 외에 건판과 같은 감광판과 소장 경로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13) 한국문화재연구소가 2003년 보스턴미술관의 한국문화재 소장 상황을 조사하면서, 로웰이 1884년 조선에서 촬영한 사진도 이때 재촬영 작업을 해서 한국에 다시 소개하였다.

〈사진 13〉 로웰, 원각사지10층석탑, 서울, 1883, 보스턴미술관 소장



풍속을 주제로 한 스테레오사진(Stereoscopic Photography)과 랜턴슬라이드(Lantern Slide)사진이 크게 유행하던 때였다. 이러한 유행을 따라 한국에도 스테레오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사진가들이 파견되었다. 1900~1902년에는 미국의 〈키스톤(Keystone)〉사 소속의 미국인 사진가 줄리언 코크레인(Julian Cochrane)이 한국을 촬영했으며, 1902~1903년에는 영국의 〈언더우드 앤 언더우드(Underwood and Underwood)〉사 소속의 사진가 허버트 폰팅(Hurbert Ponting)이 방문해 엄청난 양의 사진을 촬영했다. 이들이 촬영한 사진은 카드 형식과 랜턴슬라이드 형식으로 수백 벌씩 제작되어 미국과 유럽 전역에 판매되었고, 현재도 많이 남아 있다. 〈사진 14〉는 폰팅이 찍은 스테레오사진으로 서울의 시장 모습이다.

〈사진 14〉 서울의 시장과 상인, 젤라틴실버프린트, 스테레오사진, Underwood and Underwood, 1902~1903. 한국이미지언어연구소 소장



위에서 살펴본 다양한 의도와 형식의 사진기록 외에도, 한국의 외교 사절단들이 일본과 서양 현재의 사진관 등에서 찍은 사진 또한 서양인들에게 주로 소비된 사진이미지들이었다. 1876년에 ‘강화도조약’으로 일본과 외교 관계를 맺고 문호를 개방한 이래, 조선 정부는 일본을 비롯한 미국 및 유럽의 여러 나라와 외교관계를 맺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목적과 이름으로 사절단을 외국에 파견했다. 일본과의 조약 체결 직후 몇 차례 파견한 ‘수신사(修信使)’ 일행, 중국의 신식 군사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파견한 ‘영선사(領選使)’ 일행, 미국과의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 이후 조선 주재 미국 공사의 부임에 대한 답례로 파견한 ‘보빙사(報聘使)’ 일행 등이 대표적인 사절단이었다. 이들은 가는 곳마다 자의적으로 또는 해당국 정부의 권유로 인물사진을 찍었고, 이들이 찍힌 사진은 여러 벌 인화가 되어 유럽과 미국 등 서양 각지로 팔려 나갔다. 북경을 방문해 러시아관에서 연행사 일행이 찍은 사진의 다른 인화본이 영국 런던대학의 소아스(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의 아카이브에서 발견된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sup>14)</sup>

한편 우리가 주체적으로 사진을 제작해 세계로 유포한 경우도 있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주로 대한제국 시기 고종이나 순종 황제의 인물 사진이 여기에 해당한다. 고종은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로 즉위하는 과정에서 개화파 인사들이나 서양인들을 통해 군주의 사진이 국민 통합의 정치적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외국에 황제의 권위를 드러낼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음을 알았다(권행가 2005, 74). 실제 일본 왕실에서 조선의 사신들에게 배포한 일왕의 사진이 고종에게 전달되기도 했고, 독일의 하인리히(Albert Wilhelm Heinrich Prinz von Preußen, 1862~1929) 친왕(親王)의 경우는 1899년 한국을 방문했을 때 자신의 초상사진을 고종에게 선물하기도 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사진 자체에 우호적이었던 고종은 로웰이나 지운영 등이 찍은 자신의 사진을 서양의 외교사절단에게 선물하기도 했고, 『그리스도신문』과 같은 언론 매체를 통해 판각의 형태로 백성들에게 배포하기도 했다(최인진 2010, 269-274). 외치와 내치의 용도로 사진을 적극 활용한 것이었다. 이렇게 보급한 고종의 어사진(御寫眞)은 세계 각지로 퍼져나가 많은 매체에 실렸으며, 한국의 이미지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 6. 결론

이상의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경우 사진과의 접촉은 나라의 운명과 궤를 같이 했으며, 사진에 대한 능동적인 접근이 아니라 수동적인 기록의 단순한 피사체로 전락해버린 역사를 갖고 있다. 그리고 사진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후에도 우리나라의 사진은 초상사진의 범주에 머물러 있었고, 우리나라의 풍물이나 사회상에 대한 사진기록은 서양과 일본의 제

14) 이들이 찍은 사진의 경위와 내용, 이미지 등은 본 연구자의 두 논문 <박주석, 2018. 조선인의 사진체험담 연구. 『AURA』, 41.>와 <박주석, 2008. 사진과의 첫 만남-1863년 연행사 이외의 일행의 사진 발굴. 『AURA』, 18>에 자세하게 설명했다.

국주의적 시선과 필요에 의해 생산, 유통되었다.

조선 말 한국의 개방을 촉진시켰던 일련의 사건들, 즉 병인양요, 신미양요, 운양호 사건, 거문도 사건 등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진에 찍히는 계기였다. 그 이후는 청일전쟁, 러일전쟁과 같은 제국주의 침탈의 과정과 필요 그리고 군사, 외교적 정보 수집 차원에서 대부분의 사진이 만들어졌고 유통되었다. 또 한편으로는 제국주의 시대 서구인들이 타자화한 이국적이고 신비하지만 야만적인 지역에 대한 호기심과 시각적 도락을 충족시키기 위해 한국에 진출한 일본인 사진사들이 만들어 판매하고 공급한 사진들이 한국의 이미지를 정형화시켰다.

따라서 사진이미지를 정확한 생산과 유통의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고 사진의 내용만 갖고 당시를 해석하려는 시도는 앞서 ‘명성황후’ 사진으로 오인한 사진의 예에서 보듯이 엄청난 소모적 논쟁을 불러일으킨다. 오늘날 사회와 학문 분야에서는 과거와 달리 사진이미지가 중요한 소통의 도구이자 정보를 제공하는 매체로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진기록물에 담긴 내용을 파악하는 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진 자체의 생산과 유통의 맥락 정보 역시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 기록학에서 요구하는 맥락 정보를 정확히 이해하고 파악했을 때 비로소 사진기록에 대한 제대로 된 해석이 가능해진다. 본 연구가 한국 초기의 사진기록과 사진이미지 맥락 정보 연구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

## 〈참고문헌〉

### 〈사료〉

- 『德壽宮國葬畫帖』, 京城日報社  
『東亞貿易新聞』  
『大韓每日申報』  
『皇城新聞』  
『한반도(韓半島)』  
『Harper's Weekly』  
『La Vie Illustrée』  
『L'Illustration』  
『Le Petit Parisien』  
『Le Tour du Monde』  
『The Graphic』  
『The Illustrated London News』  
『The national geographic magazine』  
『The National Geographic』

### 〈국내도서〉

- 강명숙 외. 2009. 『침탈 그리고 전쟁』. 파주: 청년사.  
권혁희. 2005. 『조선에서 온 사진엽서』. 서울: 민음사.  
조경철. 2004. 『퍼시벌 로우웰』. 서울: 대광문화사.  
최인진. 1999. 『한국사진사 1631-1945』. 서울: 눈빛.  
최인진. 2010. 『고종, 어사진을 통해 세계를 꿈꾸다』. 서울: 도서출판 문헌.  
한국관계고서찾기운동본부. 2006. 『코리아 건문록』 도록.

### 〈국내논문집〉

- 권행가. 2013. 근대적 시각체제의 형성과정-청일전쟁 전후 일본인사진사의 사진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근현대미술사학』, 26, 195-228.  
김재승. 1996. 朝鮮海에서 英國의 海洋活動과 韓英關係(1797-1905). 『해운물류연구』, 23, 217-264.  
박주석. 2008. 사진과의 첫 만남 : 1863년 연행사 이의익 일행의 사진 발굴. 『AURA』, 18, 50-61.  
박주석. 2018. 조선인의 사진체험담 연구. 『AURA』, 41, 6-18.

- 박주석. 2019. 일제하 북촌의 사진관과 <경성사진사협회>의 등장. 『AURA』, 42, 61-73.  
박평중. 2009. 근대시기의 사진기록에 나타난 한국 이미지의 정형성. 『AURA』, 20, 148-159.

<학위논문>

- 권행가. 2005. 『高宗皇帝의 肖像 : 近代 시각매체의 導入과 御眞의 變용』.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보고서>

- 국립문화재연구소. 2004. 『미국 보스턴미술관 소장 한국문화재: 2004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 보고서』.  
이돈수. 2008. 근대전기 한국이미지 연구의 지평 확대를 위한 제안. 『근대전기(1860's~1910) 한국에 대한 서양인의 이미지 자료 연구 결과보고서 : 자료해설집』. 명지대학교 방목기초교육대학.

<서양도서>

- Baudelaire, Charles. 1980. The Photography and Modern Public, *Classic Essays on Photography*. New Haven: Leete's Island Books.  
Belcher, Edward. 1848. *Narrative of the Voyage of H.M.S. Samarang, during the years 1843-46. Vol. 1*. London: Royal Navy.  
Bennet, Terry. 1997. *Korea : Caught in Time*. London: Garnet publishing.  
Bishop, Isabella B. 1905(1898). *Korea & Her Neighbours vol. I, II*. U.K.: John Murray.  
Bishop, Isabella B. 1988. *Korea and Her Neighbors*. New York: H. Revell Co.  
Hamilton, Angus. 1904. *Korea : Das Land des Morgenrots nach Seinen Reisen gescgildert*. Germany: Otto Spamer.  
Lowell, Percival. 1885. *Choson: The land of morning calm*. U.S.: Ticknor and Company.  
Talbot, Henry Fox. 1844-1846. *The Pencil of Nature*. London: Longman Brown, Green & Longmans.  
White, Trumbull. 1895. *The War in the East : Japan, China and Corea*. UK: Eliot Publishing Co.  
Zabel, Rudolf. 1906. *Meine Hochzeitsreise durch Korea während des russisch-japanischen Krieges*. Altenburg: Stephan Geibel Verlag.

Zuber, M. H. 1873. *Une expedition en Coree*. Paris: Le Tour Du Monde.

<번역서>

- Benjamin, Walter. 1991. *Schicksal und Charakter Zur Kritik der Gewalt Über den begriff der geschichte et al*. Suhrkamp; Frankfrut a. M. (최성만 옮김. 2008.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 폭력비판을 위하여 초현실주의 외』. 서울: 도서출판 길).
- Newhall, Beaumont. 1982. *The history of photography : from 1839 to the present*. New York: The Museum of Modern Art. (정진국 옮김. 2003. 『사진의 역사』. 서울: 열화당).
- Said, Edward W. 1993. *Culture and imperialism*. New York: Knopf. (김성호·정정호 옮김. 2002. 『문화와 제국주의』. 서울: 도서출판 창).
- Bishop, Isabella B. 1988. *Korea and Her Neighbors*. New York: H. Revell Co. (이인화 옮김. 1994.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 서울: 도서출판 살림).
- Daval, Jean-Luc. 1982. *Photography ; history of an art*. New York: Rizzoli International Publications. (박주석 옮김. 1991. 『사진예술의 역사』. 서울: 미진사).
- Pultz, John. 1995. *Photography and the Body*. London: Everyman art library. (박주석 옮김. 2000. 『사진에 나타난 몸』. 서울: 예경).
- Lowell, Percival. 1885. *Choson: The land of morning calm*. U.S.: Ticknor and Company. (조경철 역. 1986. 『고요한 아침의 나라』. 서울: 대광문화사).